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차문화연구 담론’에 대하여

신정호^{*1)}

<목 차>

I	서언
II	본론
1.	자본과 무역
2.	제국과 생산
3.	자연과 실천
IV	결어에 대신하여
V	참고문헌

I. 서언-‘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차문화연구 담론’

차(茶, Tea)문화 연구는 ‘뉴노멀 시대의 (중국)인문학 연구’의 담론으로 될 수 있는가, 진실로 그것이 가능한 일로 되려면 어떠한 관계(들)에 대하여 사고해야 하는가, 가 본 글의 집필 동기이자 목적이다. 차의 종류, 다례, 다기, 찻자리 등등 차에 얹힌 수많은 주제를 탐구하는 기능적 탐구는 인문학(자)들의 연구 성과로 인정되어 왔고, 향후 그러한 인정은 수용될 것이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의 중국인문학 담론[新常態時代，中國人文學話語]²⁾’은 사뭇 다른 경계와 시야가 요구된다 하겠고 해당 요구는 세상과 인간계에 관한 설명력을 생명으로 삼는 인문학(연구자)의 자기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판이다. 요구가 간단치 않은 까닭은 ‘뉴노멀[新常態]’이라는 용어가 중국 측으로부터 2012년 즈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가의 국민경제 발전모델³⁾을 둘러싸고 강한 주장이 발신되어오고 있는 모양이 뚜렷하기

1) 목포대학교 교수 modernchina@hanmail.net

2) 중국인문학회는 2021년 추계 학술대회의 주제를 ‘뉴노멀 시대의 (중국)인문학 연구’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간 세 차례 사용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인문학 연구’라는 주제가 팬데믹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발전한 소산으로 여긴다. 한국어 표현 ‘뉴노멀 시대’의 중국어 번역어 표현으로 ‘新常態時代’가 옳은지는 검토를 요하는 별도의 문제다.

때문만은 아니다. 분명 중국의 그것은 정경 노선 근처의 사정도 작용력을 발휘하고 있을 터인데, 한국의 중국 인문학 연구(자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뉴노멀 시대의 중국 인문학 담론’, 또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중국 차문화의 담론’이라는 주제를 낸 이상, 해당 사태를 염두에는 두되, 본 글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종의 경계와 시야를 확장하여 중국 인문학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데 집중해보고자 한다.

본론에 나아가기에 앞서 ‘뉴노멀(New Normal)’의 함의를 정의해보기로 한다.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로저 맥너미(Roger McNamee)의 저서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새로운 표준 :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2004)에서 인터넷 시대의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가운데 “새롭게 보편화되는 경제 환경”을 정의했다. 정보통신과 경제의 결합, 이른바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가져올 리스크와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면서 이 새로운 상황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 새로운 용어는 경제 분석가들과 언론에 의해 2008년 5월 이후 저성장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블룸버그[Bloomberg News]에 출연한 언론인 리치 밀러(Rich Miller)와 매튜 벤자민(Matthew Benjamin)은 이른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준”으로 등치시켰다. 이후 미국 발(發) 이른바 서브프라인모기지 사태는 이러한 사용을 고착시켜 놓았고,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면서 이 새로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중국은 2012년 제18대 당대회 이후 집체학습과 토론을 거쳐 2014년 ‘신상태(新常態)’라는 용어를 영어의 ‘뉴노멀’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⁴⁾

2019년 이후 뉴노멀이라는 이 용어는 새로운 함의를 획득해가고 있는 중이다. 2019년 연말 즈음 발생하여 2021년 현재까지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방역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인류의 새로운 생활 방식까지를 뉴노멀로 포함시키자는 주장

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런민일보』(2019년 5월 6일자 제1면, 제2면)는 ‘권위 있는 인사의 해설’을 통해 중국 경제발전의 총체적 국면에 대해 설파하고 U자형이나 V자형이 아니라 L자형 발전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설파한반 있다. 장기적인 전 세계적 경기불황을 전망하며, 공급망 [供給側, supply chain] 구조개혁 지속적 추진, 기존 재정·통화정책 유지하며 총수요 확대, 각 경제 주체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 이상 3가지 핵심적 과제를 주문하고 있다.

4)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5월 들어 펌코(PIMCO)의 모하메드 엘에리안(Mohamed El-Erian)는 “실업률의 증가”, “글로벌 성장 둔화”, “금융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의 지속적 상황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 경제의 뉴노멀”을 제시했다. 한국에서도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정부차원의 보고서는 다음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펴낸 『10년 후 대한민국-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2016)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을 ‘뉴노멀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지속적인 경기 부진, 실업 증가, 기업 생존환경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리하거나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그것이다. 감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 대면접촉 서비스의 불황, 언택트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 및 그 영향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구조를 지칭하는 의미로 그 함의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당초 장기적 경기 불황을 명명하기 위해 고안된 뉴노멀의 의미와는 다른 맥락이라 하겠다. 중국인문학회와 대한중국학회가 2021년 가을 학술대회의 총주제로 착안한 부분은 이 점에 비추어보면 뉴노멀의 역사적 맥락보다 바로 이 새로운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 글은 역사적 맥락과 새로운 상황 모두를 주시하고자 한다. 장황하게 의미 변화 과정을 나열해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야를 파지하고자 함이다. ‘뉴노멀’의 새로운 정의와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확장되든 간에, 세계적 경기 불황의 진단과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 속에는 암연히 하나의 궁정이 전제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저성장의 위협 속에서도 반드시 성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인류 사회가 함께 도전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II. 본론

1. 자본과 무역

1935년 우커스가 출판한 출판한 All about Tea는 육우의 『다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책의 첫 머리에 실고 있다. 서양의 차의 다경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 책은 대부분의 내용을, 특히 두 번째 권의 대부분을 차의 무역에 할애하고 있다.

책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차 무역 당시 전 세계에서 차의 생산과 차 교역이 어떠한 방식과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대 자본가와 자본 단체(협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활약했는지 사진 자료를 첨부해가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그 구성의 일부분이다.

All about Tea II의 구성(일부)⁵⁾

Vol.	구성	원문	Chapter	주요 내용	비고
II	Book IV	PAGES vi A Tea THESAURUS			1-35
		CommercialAspects	1 Trading IN PRODUCING Countries	차생산국의 잎차 무역	36-55
			2 MaRKETING IN Consuming COUNTRIES	잎차 소비국의 시황	56-81
			3 Whole salesale Tea MERCHANDISING	잎차 도매 무역	82-93

5) Ukers, William, *All about Tea I, II*, New York: The Tea and Coffee Trade Journal Company, 1935.

		4	RETAIL Tea Merchandising	잎차 소매 무역	94-107
		5	History OF THE Tea TRADE IN China	중국 잎차무역사	108-120
		6	Dutch Tea TRADE History	네델란드잎차무역사	121-134
		7	History OF THE BRITISH IN Tea	영국 잎차무역사	135-153
		8	TEA TRADE IN THE BRITISH INDIES	영국령 인도 잎차 무역	154-197
		9	Noted FIRMS IN THE BRITISH ISLES	영국 대표사 및 저명 인사	198-207
		10	BRITISH Tea TRADE Associations.	영국 차무역협회	208-209
		11	TEA SHARES AND Tea SHARE TRADING	잎차 주식과 차 주식 무역	210-229
		12	TEA TRADE HISTORY OF JAPAN	일본의 차 무역사	230-234
		13	The FORMOSA Tea TRADE	타이완의 차 무역	235-245
		14	TEA TRADE IN OTHER LANDS	기타 지역의 차 무역	246-293
		15	AMERICAN Tea TRADE HISTORY	미국의 차 무역사	294-331
		16	History OF Tea ADVERTISING	차 광고사	332-356
		17	PRODUCTION AND Consumption	생산과 소비	

자본과 노동,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면 지구의 토지를 무한대로 개발하고 상품의 가치를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다는 물지각의 상업주의적 시각은 이 지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노동가치에 대한 자각은 무역의 중대와 그 우호적 서술 앞에 실종되고 없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중국의 차 수입을 통해 취한 다음 표의 총화폐가치 점유율은 그러한 자각이 마비되고도 남을 법했다는 점을 응변해고도 남는다.

영국 동인도회사 중국 차 수입 총량 가치 비율(1722-1833)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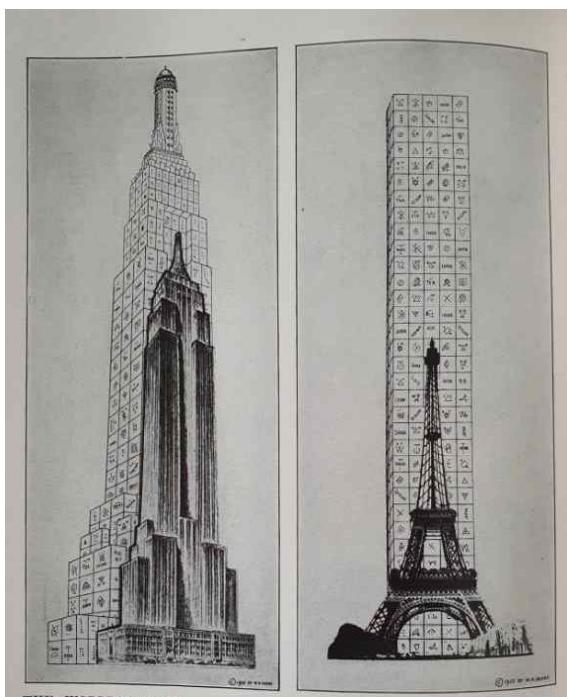
연도	총가치 兩	잎차(茶葉)		총화폐가치 점유율(%)	비고
		수량	화폐 가치		
1722	211850	4500	119750	56	
1723	271340	6900	182500	67	
1730	469879	13583	374311	73	
1733	294025	5459	141934	48	
1736	121152	3307	87079	71	
1740	186214	6646	132960	71	
1750	507102	21543	366231	72	
1761	707000	30000	653000	92	
1766	1587266	69531	1370818	86	
1770	1413816	67128	1323849	94	

6) 중국과 영국 동인도회사 간 무역 가운데 잎차(茶叶) 무역의 점유율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arl Pritchard, The Years of Early Anglo-Chinese Relations, 1750-1800, Vol.2.-vol.4., pp.359-396.

1775	1045433	22574	498644	48	
1780	2026043	61200	1125983	55	
1785	2942069	103865	2564701	87	
1790	4669811	159595	4103828	88	
1795	3521171	112840	3126198	89	
1799	4091892	157526	2545624	62	
1817	4411340	160692	4110924	93	
1819	5786222	213882	5317488	92	
1822	6154652	218327	5846014	95	
1825	5913462	209780	5913462	100	
1833	5521043	229270	5521043	100	

공급 과잉의 문명을 반성하고자 하는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 담론 형성 과정에서 세계 차 무역과 그것을 추동한 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매우 중요한 콘텍스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2. 제국과 소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에펠탑이 선명하게 그려진 뒤로 해당 건축물(들)을 왜소하게 보이게 하는 두 가상 건축물은 서양 제국의 차 수입 및 소비량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칼 맑스는 차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즉 차의 수입(중국으로부터 이동)과 소비 시장(유럽 현지)의 불균형이 바로 상품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다음처럼 경고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 한 차의 물량은 1793년에 16, 167, 331파운드를 넘지 않았다 ; 그러나 그것이 1845년에는 50,714,657파운드, 1846년에는 57,584,561파운드에 달하였다 ; 지금 그것은 60,000,000파운드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철의 차 수확은, 상하이로부터의 수출 통계표가 이미 보여 주고 있듯이 전년도 수확량을 적어도 2,000,000파운드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과는 두 가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으로, 1851년 말의 시장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막대한 재고 물량이 1852년의 수출로 이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차 수입에 관한 영

국의 입법이 변경되었다는 최근의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처분 가능한 모든 차가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기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다가올 수학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비단 영국 일국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비록 증감 비중이 조금 나타나지만 전 유럽의 차 소비는 자본주의 상품경제 발전의 가속 일로에서 중국 차 수입량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대되어갔음을 다음 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중국 차 수입⁷⁾

연도	영국		대륙 국가		비고
	연평균 운송량	구매액 비율(%)	연평균 운송량	구매액 비율(%)	
1719-1725	6819	33.50	5854	46.50	
1726-1733	8239	43.69	10615	56.31	
1734-1740	10399	30.61	23571	69.31	
1741-1748	14863	24.03	46844	75.92	
1749-1755	22983	26.10	65059	73.90	
1756-1762	24577	32.44	51169	67.56	
1763-1769	50547	39.19	78428	60.81	
1770-1777	52262	34.05	100619	65.95	
1778-1784	58365	37.44	97087	62.56	

공급 과잉의 문명을 반성하고자 하는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 담론 형성 과정에서 서방이 세계 각지의 (개간)농지에서 차를 생산하고 수입하여 소비한 이력 또한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을 재구성해나가는 데 세계 공급망 왜곡과 노동가치의 왜곡을 반성하는 매우 중요한 콘텍스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3. 자연과 실천

성장에 대한 집착은 자본주의 경제든 사회주의 경제든 동일하며, 지구 환경 내에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노동력과 자연력에 대한 소유와 지배를 낳는다.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인문학 연구의 과제로서 차문화 연구는 안성맞춤이다. 동시에 차(문화 연구)에 대한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계로 물화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인류세(인간세)의 성장에

7) 庄国土，《从丝绸之路到茶叶之路》，收于《海交史研究》，1996年第1期，第5-6页。

대한 집착을 낳은 후 또한 그것의 무상함을 이윽고 깨닫게 하는 경계와 그 안팎으로 인간을 넘나들게 한다. 코코아, 커피가 그 경계로까지 인간을 이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일찍이 듣지 못했다. 그것은 차가 지니고 있는 덕성(德性)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고래로 혼인들은 말하고 있다.

성장에 대한 집착은 바야흐로 인류세(인간세)의 성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중립 목표, 환경운동 등등 지난날 자연보호운동을 무색케 하는 상품경제의 이러한 결과는 과연 인류가 산업적 동기 앞에 생태적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 도저한 의문을 품을 수 없지 않게 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全)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친환경, 기후 위기 이슈는 자본주의가 창안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 또는 신기술 개발 자체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말해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 상황으로부터 발원한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2°C 상승하였는데, 지구과학자, 환경학자, 물리학자, 생태학자 등 제 학문 영역의 전문 연구 결과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2100년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6.0°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는 100년 만에 1°C 를 변화시키며, 자연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온도 변화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지구 평균온도를 상승시키는 중이다.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였던 20,000여 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약 6.1°C 낮았으며, 마지막 빙기에서 현재의 간빙기로 오기까지 약 6,100년 상승했다.

인류의 공동 노력이 부재할 경우, 가뭄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지고, 가뭄으로 인해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게 될 전망이다. 제1차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온도가 1°C 씩 상승할 경우 다음 표처럼 지구환경 및 인류의 대재앙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구기온 상승과 생태계 영향 관계⁸⁾

지구 온도	생태계	인류	GDP*	비고
1.5°C	♦	♦ 5.1억 명 침수 피해		2028년 경
2°C	♦ 폭염, 한파 ♦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 생물도 서서히 ♦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이 가라앉음	♦ 극렬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8)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보고서(2018), 스위스 리 연구소 보고서(2021.7.), 영국 환경청도 보고서,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비영리 기후 연구단체 ‘기후중심(Climate Central)’, 미 프린스턴 대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자료 종합. 2050년 2.6°C , 3.2°C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측은 스위스 리 연구소 보고서(2021.7.) 인용.

2.6°C	◆	◆	-13.9%* (2050)	스위스 리 연구소
3°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상의 20~50%의 생물이 멸종 위기 ◆ 기근으로 인해 많은 생물이 사망 ◆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그 일대는 가뭄으로 인한 거대한 화재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뭄 ◆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 사망 ◆ 해안침수로 인해 연 1억 7천만 명이 피해 ◆ 8억 명 침수 피해 		2060년 경
3.2°C	◆	◆	-14%*	스위스 리 연구소
4°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30~50% 감소 ◆ 서남극 빙상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지중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억 명이 해안 침수 피해 ◆ 아프리카는 농산물이 15~35% 감소 식량난 		
5°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가 빈번 ◆ 중국과 인도 등의 영향권에 있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생존 가능 지역 빠르게 감소 ◆ 군소도서국과 뉴욕, 런던 등 침수 		재난으로 인해 자본시장 붕괴
6°C	◆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되면서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			

다음 <그림1>로부터 산업혁명 이후, 특히 2차 대전 이후 지구의 인구, GDP 성장, 에너지 소비, 물 소비, 종이 생산, 국제여행 등등 제반 영역에서 인류 사회와 지구촌 경제가 비약적 발전 과정을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류 사회와 지구촌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소비 과정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그 발전의 다른 한 측면에 지구 생태계 및 지구환경의 파괴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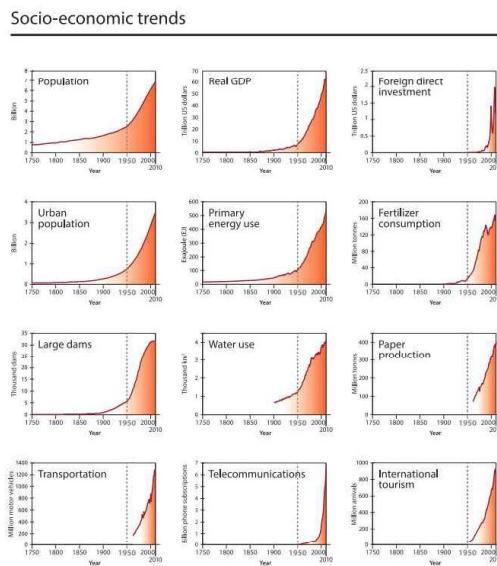
<그림2>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최근까지 지구환경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지구의 기후변화의 위기가 곧 온실가스 배출의 증대, 화석연료 사용, 사막화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의 제1단의 좌측, 우측 그림과 제4단의 좌측 그림은 온실가스 증가와 삼림 파괴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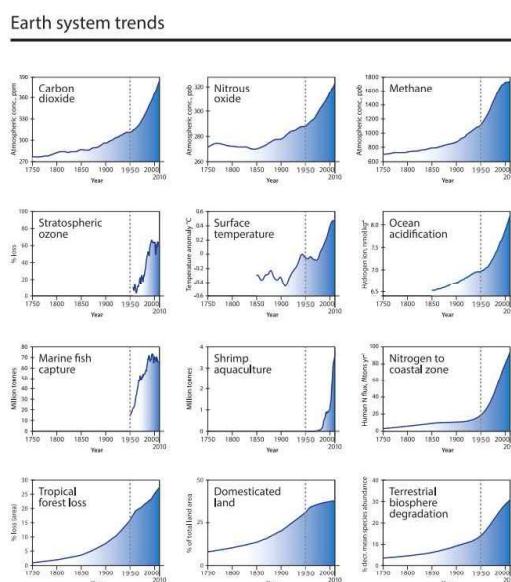
2050년까지 산업혁명 초기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치를 1.5°C 이하로 통제하지 못하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행성으로 변한다는 절박한 현실은 인류 사회에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은 온실가스이며, 따라서 온실가스의 핵심인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1: 사회 경제 시스템〉⁹⁾



〈그림2: 지구 시스템 동태〉¹⁰⁾



지구 온도의 지속적 상승은 지구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大)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구촌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 노력 확산

9) Steffen, Wendy Broadgate, Lisa Deutsch, Owen Gaffney,, “The trajectory of the Anthropocene: The Great Acceleration”, *The Anthropocene Review*. Volume: 2, Issue: 1, pp. 81–98.

10) 위와 같음

탄소저감, 탄소제로 목표로 압축되는 지구환경 위기 대응은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 연료 또는 에너지원 전환 문제는 순수한 과학기술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생존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바로 이러한 전 지구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주어진 인류의 공통과제라는 인문사회적, 정치적 재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문화 연구)를 통한 뉴노멀 시대의 인문학 연구 담론 형성은 자연의 무한 개발과 자연력 가치 이용에 대해 근본적 사고를 병행하는 데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 인문학을 열어갈 수 있다.

차(문화 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¹¹⁾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문학 담론 형성으로부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인문학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다.

III. 결론

차의 덕성은 현상 너머의 본질에 다가가게 하는 점 있는 바, 이곳에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의 인문학 담론’이 탐구될 수 있다.

자연력을 이용하는 차의 재배와 생산에 대한 연구 또한 차의 덕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더불어 뉴노멀 시대의 생태주의적 인문학 담론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는 바 있을 터이다.(미완)

【参考文献】

마르크스 엥겔스, 『칼 맙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제2권], 박종철출판사, 1991.
사사키 류지, 『마르크스와 자본론』, 산지니, 2020.6.

陸羽, 『茶經』, 百川學海本
諸岡存, 『茶經評釋』(全二卷), 茶業組合中央會議所, 1941.
諸岡存, 『茶經評釋』(外篇), 出版科學總合研究所, 1943.
青木正兒, 『中華茶書』, 春秋社, 1962.
布目潮漁, 『茶經詳解』, 淡交社, 2001.
클라이브 폰팅,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 세계사』, 민음사, 2019.
최범술, 『韓國의 茶道』, 현암사, 1975.
최범술, 『최범술전집』[제2권], 민족사, 2013.
김병배, 『다도학 논고』, 대광문화사, 1999.
김병배, 『다도학 논고 Ⅱ』, 대광문화사, 2001.
여연, 『우리가 알아야 할 차문화』, 현암사, 2007.

Ulkers, William, *All about Tea I, II*, New York: The Tea and Coffee Trade Journal Company, 1935.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习近平关于社会主义生态文明建设论述摘编』, 中央文献出版社, 2017.
習近平, 『携手构建合作共赢、公平合理的气候变化治理机制—在气候变化巴黎大会开幕式上的讲话』, 2015.(2015.11.30.)
中共中央 国务院, 『中共中央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人民出版社, 2021.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人民出版社, 2021.

11) 사사키 류지, 『마르크스와 자본론』, 산지니, 2020.6.